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방안”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 6.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어 명근

1. 출장 목적: 중국의 과일산업 관련 자료 수집 및 감귤 주산지 실태 조사

2. 출장 지역: 중국 절강성 항주시, 대주시

3. 출장자: 선임연구위원 어명근

4. 출장기간: 2007년 6월 11일~16일(6일간)

5. 출장 일정

일자	시간	일정	숙박
06.11(월)	오후	○ 이동(인천 ⇒ 항주)	항주
06.12(화)	오전 오후	○ 절강성 농업청 ○ 절강감귤산업협회 ○ 절강대학교 과수과학연구소 ○ 절강성양유식품진출구유한공사	항주
06.13(수)	오전 오후	○ 절강성감귤연구소 ○ 중국감귤박람회장 ○ 황암밀감기지	대주
06.14(목)	오전 오후	○ 동신과품유한공사(과일도매시장) ○ 소매시장(好又多量販: Trust Mart)	항주
06.15(금)	오전	○ 절강성차박물관 ○ 용정차 생산 마을	항주
06.16(토)	오후	○ 이동(항주 ⇒ 인천)	

6. 조사 내용

(1) 절강성 감귤 산업 개요

절강성은 중국의 동부 연안에 위치하여 농산물과 수산물이 풍부한 “어미지향(魚米之鄉)”으로 불리는 성임. 아열대 습윤 계절풍 기후에 속해 다양한 과일이 생산되고 있으며 감귤은 절강성의 대표적인 과일로 성 전체 과일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2002년 절강성의 감귤면적은 186만무, 생산량은 164만 3천톤, 생산액은 20억 위안을 넘어 과일 전체 생산액의 42.6%를 차지하였음. 절강성의 감귤 생산량은 전국 4위이나 품종, 품질, 브랜드 면에서 최고 수준임. 절강성의 감귤 주산지는 대주(台州), 구주(衢州), 여수(麗水), 항주(杭州), 영파(宁波), 온주(溫州), 금화(金華), 주산(舟山) 등이며 특히 대주시와 구주시의 감귤면적은 90만 8,000무로 성 전체의 48.45%, 생산량은 87만 7,300톤으로 성 전체의 53.4%를 차지하여 절강성 최대의 감귤 주산지임. 2003년 감귤 생산량은 179만 8,000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8.8% 증가하였음.

(2) 절강성 농업청 특작국 수과과

- 절강성 면적은 10.18만km²으로 전국의 1.06%(임야 70.4%, 평지 23.2%, 기타 6.4%)
 - 경지면적: 2,390만무(논 1,940만무, 밭 450만무)
 - 일인당 경지면적: 0.52무(중국 전체 일인당 경지면적: 1.2무)
- 행정구역: 11개 지역시로 나뉘어져 있고 성도는 항주. 시 32개, 현 급시 22개, 현 36개, 진 760개, 향 519개로 구성
- 인구 4,602만 명(1km²당 452명)으로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음. 절강성에는 한족 외에 49개 소수민족 40여만 명이 거주
- 절강성은 사계절이 분명하고 일조량이 풍부함. 평균기온은 15~18℃, 연평균 강우량은 1,000~2,000mm, 1월 기온이 가장 낮고 7월

기온이 제일 높으며 5월과 6월에 강우량 집중

- 수자원 총량은 937억 m³으로 단위면적당 수자원은 중국에서 4위. 삼림 피복률은 60%로 중국의 '동남식물보고'라 불림.
- 절강성의 2005년 생산총액은 1조 3,365억 위안, 일인당 생산총액은 27,552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 산업구조는 1차 산업 6.5%, 2차 산업 53.5%, 3차 산업 40%로 구성
 - 농촌의 일인당 평균 수입은 6,660위안으로 전국 3위. 재배구조가 고소득 경제작물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05년 식량과 경제작물 비중은 55:45.
 - 농림축수산업 각 분야가 모두 발전한 지역이며 가장 중요한 곡물은 수도이고 맥류, 옥수수 등도 재배
 - 경제작물은 누에, 차, 감귤, 면화, 사탕수수, 유채, 채소 등임.
 - 누에고치 생산량 전국 3위, 감귤 생산량 전국 4위, 차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전국 수위권
 - 생돈 생산의 주요 기지로 연간 1,800만 두 생산(50두 이상 사육 농가 출하 비중이 65%에 달함)
- 절강성 감귤 생산 개요
 - 1) 생산면적과 생산량
 - 2006년 절강성 감귤 생산 면적은 180만무(12만헥타)로 2002년에 비해 약 4천헥타 감소
 - 2006년 절강성 감귤 생산량은 180만톤(헥타당 15톤)으로 2002년 164만톤(헥타당 13.2톤)보다 16만톤 증가
 - 2006년 감귤 생산액은 30억위안으로 2002년 20억위안보다 증가
 - 2) 생산지역과 주산지
 - 절강성 감귤 생산지역: 약 70여개 현(시, 구)
 - 5만무 이상 현(시, 구)은 15개
 - 1,000무 이상 향진은 약 700개

- 절강성 7대 감귤생산지: 대주, 구주, 여수, 금화, 영파, 온주, 항주
 - 특히 대주시 염해, 구주시 가성구와 구강구는 최대 감귤생산지

3) 생산 품종 구성(재배면적)

- 온주밀감(95만무), 폰깡(50만무), 잡감류(20만무), 유자(10만무), 제등(5만무), 황암본지조생 등 지방품종(4만무)
- 2002년에 비해 온주밀감(57%)과 유자(13%) 재배면적은 감소한 반면 폰깡(23%)과 잡감류(6.5%) 재배면적은 확대

○ 감귤 가공

- 2006년 절강성 과일가공공장: 450여개(감귤통조림공장: 42개)
- 과일가공량과 금액: 69만톤, 27억위안(감귤통조림: 20만톤, 전국 감귤통조림 생산량의 60%)
- 감귤가공품 수출: 19만톤(전국 감귤통조림 수출량의 80%)

○ 절강성 감귤은 정부의 채람회 공정과 직접적 관계 없음.

- 채람회 공정은 주로 채소와 육류 관련 분야에 집중
- 절강성 감귤 관련 정부 정책 강요는 없음.

○ 녹색식품장려사업은 농업부에서 녹색식품인증제도 운영

- 절강성 감귤은 무공해식품 사업만 추진: 차와 채소는 그냥 먹기 때문에 유기농 인증 받지만 과일은 껍질을 벗기고 먹기 때문에 유기농 대신 무공해 식품 추진

○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분포 사업에서 절강성은 감귤, 양메이(洋梅), 배, 복숭아, 포도 주산지로 선정

- 감귤은 통조림 가공용 씨없는 온주밀감으로 품종 전환하고 생산성 증대 주력
- 1990년대 초반까지 정부가 품종 개발을 지원하고 적합한 품종을 선정하여 보급했으나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농민이 자율적으로 갱신

- 그러나 신품종 개발, 도입, 육성 및 전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고 품종 갱신도 보조: 미국과 일본(감귤), 스페인(오렌지) 및 한국(배) 등에서 신품종 도입하여 현지화 거쳐 적합한 품종 1~2개 선택

○ 농가경영 실태

- 감귤생산면적 3무 이하 농가가 전체 감귤 농가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 영세
- 감귤 전업 농가는 전체의 10%에 불과하여 품질 균일화와 규격화 곤란. 나머지 겸업농가는 시간제 농업 노동자에 불과
- 품질과 규격 표준화 위해 집단화 요구되나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농가 차원에서 추진

(3) 절강성 감귤산업협회

- 절강성 감귤산업협회는 2003년 정부 지원금에 의해 창립되어 현재 단체회원 60개 포함하여 약 100여 회원으로 구성
 - 단체회원 소속 분야는 감귤 가공, 판매농업용두기업, 감귤주산지 기술지도소 및 감귤 특산지 등 감귤 생산기지의 약 90%가 가입
 - 회비는 회장이 5만위안, 부회장이 2만위안 납부하고 개인회비는 5년간 200위안
- 최근 절강성은 품종, 품질, 브랜드 개선을 위해 감귤 우량개조 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산업화 정도 제고
 - 무공해 표준화 생산기술 개발 보급
 - 품질 제고 재배기술 개발 보급
 - 수확후 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
 - 성내외 비교 평가 및 관측활동 참여
- 절강성 감귤 생산 규모는 확대 추세에 있으며 품질과 브랜드, 수익성 등도 향상되고 있음. 감귤산업협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은 재배, 가공, 판매 분야의 교육, 연구, 기술보급임:
 - 무공해 표준화 생산기술 보급

- 가공기술 혁신
 - 품종도입 및 시험재배
 - 브랜드 구축과 시장개척
- 절강성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감귤생산 전략은 “전통”에서 “현대”로, 그리고 “소량판매”에서 “규모화 판매”로의 전환임. 또한 “기술우위”에서 “상품우위”, “상품우위”에서 “품질우위”, 그리고 “품질우위”에서 “시장우위”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과 경제 효율성간의 문제점 극복과 산업화 경영 수준 제고를 통해 시장 종합경쟁력 향상에 주력
- 절강성의 감귤 산업은 총체적으로 지역집중, 비교우위 특징을 보이고 있음. 신기술과 새로운 설비의 활용, 신개념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감귤 생산, 기술 및 수익성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녹색, 안전, 우수 품질, 브랜드, 신뢰로 표현될 수 있음.
- 절강성 임해시(臨海市) 용천진(涌泉鎮) 연어두촌(沿魚頭村) 지역의 조숙 온주밀감(早熟 溫州蜜柑)은 독특한 토양, 기후 조건과 재배관리로 생산량이 많고 품질도 높아 최근 수년 동안 판매가가 kg당 20위안 정도로 안정적. 2002년에는 감귤농장 도급입찰을 통해 40무면적이 8만 8,000위안에 낙찰되어 판매가격이 60위안을 기록.
- 절강성 감귤 산업의 조직화 현황
- 절강성 감귤 생산기지의 약 90%를 포함하는 감귤산업협회의 서비스, 유대, 협조 기능은 교육, R&D, 기술보급 및 재배, 가공, 판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조직화 수준 제고.
 - 감귤업 위주의 과일 전문협력경제조직 190여개 형성하여 자율적으로 기술, 정보, 시장개척 등 서비스 제공.
- 절강성 감귤산업의 기술 수준
- 절강성 감귤연구소, 농업과학원 원예연구소 및 절강대학 과수연구

소, 온주시 아열대작물연구소, 구주시 감귤연구소, 대주농업대학 등 연구소와 교육기구 통한 기술진보와 혁신

○ 절강 감귤의 품종 현황

- 온주밀감의 원산지인 알려진 대주시 황암(黃岩) 지역에 감귤시조지 공원 건설
- 절강성 감귤은 온주밀감, 폰캉, 잡감류, 유자, 제등, 황암본지조생 등 3종류 9개 품종의 재배율이 90% 이상임. 현행 품종 분포를 기초로 성내 R&D, 기술지도소에서 국내외 신품종 도입 및 시험재배, 관찰 통해 품종 개량 및 품종 우위 유지.

○ 절강 감귤의 생산기지화 실태

- 절강성은 《무공해 감귤》 표준을 제정하여 무공해 생산기술을 성내 100만무 이상의 재배지에 보급. 각 중점 현(시, 구)에 2~3개 우수 품질의 고효율 시범농장 건설. 감귤농장에 대한 기초시설 투입과 개조 작업 강화하는 동시에 기지의 규모 확대 및 품질 개발, 관리 수준 제고

○ 절강성 감귤의 브랜드화 수준

- 절강성은 최근 수년간 농산물의 품질 관리, 홍보 및 브랜드 혁신 사업 적극 추진. 전국 농업박람회 참여와 수상 및 비교평가지 호평, 상해, 북경 등 도시지역 판매 활동과 기업의 자발적인 홍보
- "귤화(桔花)", "천자(天子)", "산수(山水)", "일품홍(一品紅)", "임해밀귤(臨海蜜桔)", "구봉(九峰)" 등 다수의 감귤 브랜드 보유.
- 신선감귤 판매량 가운데 브랜드 감귤 비중은 50% 이상.

○ 절강성 감귤 가공산업 현황

- 감귤 포장판매와 가공무역형 농업용두기업 발전
- 국가급 농업산업화 농업용두기업인 절강황암(浙江黃岩) 통조림식품(집단)회사와 절강 천자과업(浙江天子果業) 유한공사와 성급 용두기업 10여개

- 2006년 절강성 과일가공공장: 450여개(감귤통조림공장: 42개)
- 과일가공량과 금액: 69만톤, 27억위안(감귤통조림: 20만톤, 전국 감귤통조림 생산량의 60%)
- 감귤가공품 수출: 19만톤(전국 감귤통조림 수출량의 80%, 전 세계 교역량의 70%)

○ 절강성 감귤의 유통 현황

- 절강성 과일 도매시장은 모두 100여개로 성내 및 국내시장 교역 증대에 기여. 절강 감귤은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북방 시장으로 판매. 감귤 통조림은 90% 이상이 수출되며 미국과 일본, 동남아 및 유럽지역에 안정된 시장 확보.
- 간행물 《절강감귤(浙江柑桔)》, 《절강과일정보(浙江水果信息)》 및 《절강농업 정보사이트(浙江農業信息网)》 등 정보서비스 제공.

(4) 절강대학 과수과학연구소

○ 절강성 감귤은 주로 온주밀감이며 사츠마 품종이 대부분

- 시설 재배는 아직 시험장 수준으로 규모가 작아 시장 출하 곤란
- 시설 재배는 대자본이 소요되므로 조생종 도입으로 수확기간을 앞당기는 전략 추진 중임. 일본산 조생종 도입하여 당도와 생산성, 품질 등 검사하는 단계.

○ 절강성은 복건성이나 중경시에 비해 온도가 낮아 출하가 늦고 당도도 낮음. 또한 저장 시설과 운송, 선별 등 열악한 유통 하부구조로 인해 출하기 가격 하락과 내륙 소비지역은 외국산을 수입하는 반면 주산지에서는 수출하는 모순 발생

- 절강성은 높은 소득 수준에 힘입어 조생종과 만생종 신품종 도입 및 개발로 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출하기 확장 노력
- 통상 10월과 11월인 감귤 출하를 1월까지 늦출 경우 당도 높아져 10월 가격의 최대 5배까지 상승하기도 함.

- 절강성에서 생산되는 과수 종류별 재배면적은 감귤(12만헥타), 양매(6만헥타), 배(3만헥타), 복숭아(1만 4천헥타), 포도(1만 4천헥타) 등임.
- 사쓰나 밀감이 식재된 농지의 연간 임차료 2만 위안에 조수입 5만 위안에 달하는 농가도 있음.
- 감귤 질병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황용병 발생. 잎이 누렇게 변하고 나무가 고사하는 이 병은 일정 온도 이상일 경우 벌레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기주임. 병 발생시 대책이 소각 처리 뿐인 난치병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과수연구자들은 한국 등 수입국의 SPS 조치가 무역장벽이라고 주장
- 절강성 감귤 산업은 제조업 발전에 따른 이·탈농과 환경 오염, 농지의 비농업적 용도 전환 등으로 인해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 그러나 수량 증가로 생산량은 약간 증가 추세
- 절강성의 과일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브랜드화 통한 인식 제고: 특정 브랜드 집중 육성
 - 통조림 감귤 시장점유율 세계 1위
 - 생과 수출 부진은 SPS 등 무역장벽 때문이므로 신제품 개발, 보급 통해 무공해 농산물 생산 추구

표 1. 절강성의 감귤과 포도 생산량과 비중

단위: 만톤

품목	구분	1990	1995	2000	2005
감귤	전국	485	823	878	1,592
	절강성	106	170	97	148
	비중(%)	21.9	20.7	11.0	9.3
포도	전국	86	174	328	579
	절강성	2.4	7.1	11.4	22
	비중(%)	2.8	4.1	3.5	3.8

(5) 절강성 양유식품진출구복분유한공사

- 절강성은 외국산 과일 수입이 저조
 - 미국산 오렌지(선키스트), EU의 오렌지와 바나나, 칠레산 포도와 사과 등 수입
- 중국은 세계 최대의 만다린 생산국이자 공급국이며 스페인과 미국, 모로코도 주요 생산국
 - 절강성 감귤 생산량은 200만톤 수준으로 중국내 1위, 후난과 허베이, 창시, 쓰촨 충칭 등의 순서임. 생과는 주로 캐나다, EU, 홍콩, 마카오, 러시아 등지로 수출하지만 통조림 수출이 주종. 절강성의 감귤 통조림 수출량은 약 35만톤 수준(중국 전체의 감귤 통조림 수출량의 67%)
 - 2005년 국별 감귤 통조림 수출: 미국 13만2천톤(9,200만달러)로 44.1%, 일본 6만 3,600톤(4,460만달러)로 21.3%, 독일 3만 7,300톤(2,320만달러)로 12.5% 차지
 - 한국은 2005년 약 3,200톤(200만달러)의 감귤 통조림을 수입하여 중국 전체 감귤 통조림 수출액의 1.1% 차지
 - 통조림용 감귤은 제주 밀감과 같은 씨없는 품종 사쓰마 만다린.
- 감귤통조림 수출 가격은 수확 직전 회의 통해 결정. 국제시장 수요가 제한되어 개혁 개방으로 가격 자유화 이후 경쟁적 가격 인하로 EU(스페인)로부터 반덤핑 피소 사례.
 - 중국산 통조림 가격과 품질 경쟁력 높아 스페인 공장 부도. 세계 제2위의 시장인 EU에 대한 수출 쿼터 부여에 합의하고 매년 1~2회 중국내 통조림 가공공장 회의 통해 가격 결정하는 방식 채택. 세계 최대 감귤통조림 시장인 미국에는 통조림 가공공장이 없어 문제되지 않음.
- 감귤통조림 시장은 높은 생산비 비중과 정체된 국제수요, 그리고 각종 규제 등으로 이윤이 낮고 성장 전망도 어두운 시장

- 2007년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 인건비와 설탕, 깡통 뚜껑용 주석판 등 원료 가격과 연료비, 전기료 등 인상으로 가격 상승
 - 감귤통조림 가격은 장기적으로 기상 변화에 크게 좌우됨. 특히 태풍은 감귤류에 치명적 영향. 따라서 대부분 가공공장은 감귤 이외에 바나나 등 다른 과일도 가공
- 감귤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품질과 시설 등에 대한 검사 합격해 CIQ(China Inspection Quality)로부터 우수 공장 인증 받아야 함. 현재 약 30여개 공장이 수출용 인증받은 상태
- 검사는 두가지로 국내용은 QS 마크, 수출용은 코드번호 부여(절강성은 L로 시작, L1은 영파 등)
- 수출절차
- 고객 방문 또는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가격 흥정 거쳐 계약
 - 대금지불조건(D/D, D/P, TT 등) 명시된 LC(일람불 또는 취소불 등) 개설. 선적 후 B/L 송부. 대금 수취(Nego)
- 수출 시기는 주로 10월 말부터 2월까지 집중. 9월 생산준비 회의 거쳐 10월부터 생산. 절강성은 황암구 지역이 가장 빠름. 수퍼마켓용 통조림은 매월 수출
- 깡통 규격은 가정용 11온스부터 산업용 3kg까지 모두 5가지
 - 라벨링이 중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도 실시
 - 통조림은 중량화물이므로 20피트 컨테이너에 20톤 적재
 - 식품 수입규제 대비 관련 서류 작성
 - EU 수출용 쿼터의 지역별 할당은 역사적 실적 따라 절강성 1위
- 수출허가는 1990년대까지 당 공사가 독점하였으나 현재 완전자유화되어 누구든 품질과 가격 맞으면 수출 가능
- 다만 특정 품목은 쿼터로 규제. 3등급 받은 통조림은 수출 불가하여 국내용으로 시판

- 소득 증가와 사용상 편의성으로 인해 통조림 감귤의 국내 수요는 증가 추세인 반면 국제 수요는 정체
- 미국과 EU 일본 등 1급 시장은 마진 낮고 제약 많아 정체
- 아태지역과 러시아, 동유럽 등 2급 시장은 성장성 높음.
- 아프리카, 동남아 등 3급 시장은 규모 작지만 성장성과 마진 높음.

○ 회사 소유 관련

- 성정부가 회사 지분 88% 소유(10년 전까지 COPCO 지사)
- 옷과 장신구 수출회사 등을 포함한 Glory group 소속

(6) 절강성 감귤연구소

○ 절강성 감귤생산 구조는 제주도와 유사

- 주로 만다린이며 사쯔마가 55%, 지역특산물인 폰깁이 20%로 안정적 품종 구조

○ 절강성 감귤 발전 방향은 수출 증대에 있으나 신선과일 수출은 정체된 상태이고 통조림 수출이 활발

- 절강성 통조림 감귤은 품질과 가격이 세계적 수준이지만 농민들은 생과 가격(kg당 2위안 수준)이 통조림 가공용 가격(1.2위안 정도)보다 높아 생과로 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선호함.

○ 감귤 품질 제고방안은 재배기술 개발과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을 도입 및 개발. 현재 온주밀감의 20% 수준인 조생종 비중을 확대하여 출하시기 분산 필요

- 현재 연구소 추진중인 품질 목표 수준은 당도(Brix) 14도, 산도 0.5(수확시)~0.6(판매시), 다수확(현재 절강성 평균 무당 1.0~1.2톤에서 1.5톤으로 향상), 재배용이성(수고 유지), 동해방지(내한성) 등임.

○ 주요 수입국들의 식물검역상 수입규제 문제

- 현재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생과 수출되나 주로 가공품 형태로

수출되고 있음.

- 과거 중국은 SPS 문제 등에 무지한 상태였으나 WTO 가입 계기로 SPS 규제 해제 통해 생과 수출 증대 기대로 관심 증폭
 - 2002년부터 농업부에서 해안지역 감귤 재배계획 수립 통해 수출 증대 위해 노력.
 - 한국과 일본의 고품질 생과를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교환 형태로 중국산 감귤 생과 수출 기대. 대만은 일본에 폰깡 식물검역상 규제 해제 추진하여 현재 5단계
 - 황용병(Citrus Greening)은 1997년 광둥성에서 처음 발생한 치명적 질병으로 절강성도 일부 발생. 일본과 미국, 브라질에도 발생하지만 한국에는 없음.
- 농장 형태는 극소수(절강성 4~5개) 국영농장 외에 대부분 민영
- 농지 임차료는 과수없는 농지가 무당 800위안~2,000위안, 과수 있는 경우 1,000위안~5,000위안 수준
 - 외국인 농업투자시 지방정부와 타협 통해 유리한 조건 가능. 현재 대만은 배 농장 운영, 한국은 1,000무(20만편) 농지에 한약재 재배

(7) 항주시 동신평과품유한공사

- 항주시 최대의 과일류 도매시장으로 약 6,000평의 부지에서 하루 2,000톤의 과일 거래
- 매출액은 평균 약 300만위안이며 계절적 변동이 심해 과일류 비출하기인 6월에는 약 200만위안 수준
- 반입물량은 계절별, 품목별로 변동 폭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현재(6월 초순) 주요 품목별 생산 지역은
- 양메이(洋梅), 수박, 오이 등 과채류: 절강성
 - 사과: 산둥성, 산서성
 - 멜론: 신강위구르자치구 등

- 수입 과일류는 미국과 칠레산 포도와 미국산 오렌지 등을 취급하나 물량은 많지 않음.
- 수입 가격은 장기적 하락 추세이나 금년 가격은 약간 높은 수준
- 과일류 가격은 특별한 요인이 없을 경우 대체로 안정적

표 2. 주요 과일류 도매 가격

단위: 위안/kg

품목	지역	최고	최저	품목	지역	최고	최저
사과	산둥	3.6	2.8	수박	해남	4.7	4.2
사과	섬서	4.0	3.8	멜론	신강	4.8	4.2
배	하북	2.8	2.4	파인애플	광둥	2.8	1.8
배	절강	2.5	1.2	감귤	호남	4.0	3.7
여지	해남	12.0	10.0	복숭아	산둥	7.0	5.0
망고	광서	7.5	5.0	호유(감귤)	절강(구주)	2.2	1.6

자료: 2007. 6. 14. 시장 입구에 게시된 가격임.

- 유통경로는 농민이 시장까지 직송하는 경로와 중개상을 통해 반입하는 경로의 두가지
- 판매 수수료는 어느 경우든 4.8%
- 소비자 구매 수수료는 도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구입액 600위안 이상 구입자는 무료, 600위안 이하는 1.2%, 그리고 150위안 이하는 2%를 납부하도록 규정

(8) 소매시장: 수퍼마켓(好又多量販: Trust-Mart)과 일반 과일상점

- 수퍼마켓은 과일류 가격의 다중적 구조: 고급품(주로 수입)은 높은 가격, 대중용 중저급품(주로 중국산)은 낮은 가격
- 미국산(Sunkist) 오렌지: 근당 8.8위안
- 광주산 호유: 근당 1.5위안
- 일반 과일상점은 대체로 낮은 가격의 중저가품이 주종
- 후지사과(중국산): 개당 4.5위안
- 양매: 근당 4.3위안

7. 종합 및 평가

- 전통적으로 감귤류 생산에 적합한 토양과 기후를 갖춘 절강성은 감귤 생산량 순위는 중국내 3~4위 수준이지만 품질과 브랜드 등에서 대표적인 주산지임. 특히 중경과 복건성 등 과거 감귤 생산지들이 오렌지로 품종 전환하고 있는데 비해 절강성은 감귤 생육에 알맞는 기온으로 인해 감귤 생산을 유지하고 있음.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이나 수량 증가로 생산량은 늘어나는 추세.
- 과거 중국의 과일 산업은 주로 국내 수요 충족이 우선시되어 중저가품 위주로 출하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농산물 수출을 통해 도농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수출 증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 중국 정부는 과일류 수출이 부진한 이유가 식물 검역 등 수입국들의 비관세 장벽 탓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품질 제고를 독려하고 있음.
- 절강성은 감귤산업을 “전통”에서 “현대”로 전환하는 동시에 “소량 판매”에서 “규모화 판매”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감귤산업의 핵심적 과제가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을 제고하여 최종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종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품질 제고와 수익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절강성 감귤산업의 발전 전략은 신품종 개발 및 보급과 품질 제고, 그리고 브랜드 정착 및 확산을 통한 수익성과 산업화 정도를 심화하는 것임. 먼저 신품종 도입과 시험 재배를 통한 품종 전환 사업을 확대함. 품질 제고를 위한 세부 방안은 무공해 표준화 생산기술과 재배기술 개발, 그리고 수확후 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과 가공기술 혁신 등임. 브랜드 정착 및 확산을 통한 수익성 증대를 위해 성내외 품평회 참가 및 판촉 활동 참여 등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절강성 감귤 농가는 영세한 규모와 낮은 기술 수준으로 중저급품 생산에 불과한 실정. 또한 중만생종 품종 비율이 높아 단기간의 출하기에 수출이 집중되고 비출하기에 국내 수요 충족 위한 수입이 불가피한 현상 반복.
- 그러나 대규모 농가와 기업농 형태의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기술 보급과 품종 전환 추진되어 조만간 국산에 못지 않은 품질의 감귤 생산 전망. 특히 당도는 이미 국산보다 높으며 적당한 산도 제고 시 국산보다 좋은 맛 가능.
-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중국의 특성상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 예상. 예컨대 중앙 정부에서 추진중인 녹색 식품 사업에 따라 무공해 감귤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입국들의 식물검역상 수입 규제 해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임. 또한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분포 계획 등으로 지역 특화 품목(절강성은 감귤과 포도, 배, 양메이 등)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제약요인
 - 냉장운송과 저온저장 등 과일류 유통인프라 낙후
 - 영세소농 위주의 생산구조로 인한 신기술 보급 한계
 - 소득 수준 낮아 고품질 농산물 수요 미흡
- 결론
 - 중국은 기후대와 토양 등 영농여건이 지역별로 다양한 나라이므로 감귤 등 과일류 수급과 유통, 교역 문제를 국가 전체 보다는 주산지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생산 측면에 이중적 구조가 존재: 0.5ha 미만의 영세소농이 대부분이지만, 대규모 선도 농가의 생산량 비중은 증가 추세. 따라서 영세소농이 생산하는 중저가품은 주로 국내 소비용으로 출하되는 반

면 선도 농가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고가품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수용 및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형태. 따라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어느 지역에서건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소비구조도 이중구조: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소득층의 소비와 함께 가격보다는 품질과 외관을 중시하는 고소득층 시장이 병존. 특히 고가의 고품질 과일은 식용보다는 선물용 수요가 대부분으로 품질과 함께, 색상 및 브랜드와 이미지 등이 중요한 요소임.
- 현재 감귤 등 중국의 과일류 가격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맛과 안전성 등 품질경쟁력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 특히 감귤류는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황용병 유행지역이므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낮음. 그러나 최근 중국의 각급 정부 주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과 보급을 통한 품질 제고와 선도 농가와 주산지별 주축으로 브랜드 확산 등 고도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는 등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절강성의 경우 한국 및 일본산 고품질 과일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싯점에서 중국산 감귤에 대한 식물방역법상 수입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전략(절강성 감귤연구소)임.
- 중국산 과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지는 우리나라 과일 산업은 우선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식품 안전성과 함께 맛 등 품질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국내 고품질 과일 시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브랜드 정착과 품질 수준 안정 및 식품 안전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품질도 향상된 중국산 감귤의 국내 시장개방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 직접 진출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을 우선 공략하는 전략이 요구됨.

- 끝 -